



## 모성적 영성에 마음을 담그다

민규동 감독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 강진구

『엄마를 부탁해』의 도시적 영화 버전

돌고래, 북미산 대머리 독수리, 그리고 어머니. 이 세 가지 사이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셋 모두 다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어마 봄벡

미국의 여류유머작가로 널리 알려진 어마 봄벡(Erma Bombeck)은 모성애가 사라진 미국현대사회를 향하여 재치있고 의미있는 말을 남겼다. 196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화되고 여성인권운동이 가속화되던 시기에 겪어야 했던 가정의 붕괴와 여성의 남성화 현상에 대하여 그녀는 우려 섞인 유머를 자주 날리곤 했다. '어머니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임을 주장하던 그녀였음을 생각할 때 어머니를 멸종 위기에 놓인 존재로 인식한 것은 모성애의 가치가 소멸되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썩



이나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신경숙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엄마를 부탁해』의 영역판 *Please Look After Mom*이 5월 1일자로 발표되는 미국 타임지 선정 양장본소설(Hard Cover)부문 14위에 올랐다. 베스트셀러 1위를 달성한 것도 아닌데 웹 호들갑이나 하겠지만, 한국인의 소설이 번역되어 미국 베스트셀러의 랭킹에 오르며 세계적인 언론에 관심을 받기란 1964년 김은국의 ‘순교자(The Martyred)’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작가의 수나 출판시장의 규모에 있어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넓은 미국의 출판계에서 베스트셀러 순위로 오르는 일은 가히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문화와 정서를 고스란히 받고 자란 작가의 작품이 영문으로 번역되어 미국인들의 마음에 다가가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엄마를 부탁해’의 성공에는 한국의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생적인 모성애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미국의 독자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규동 감독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현대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바로 그 모성적 가치의 선상 위에 자리하고 있다.

### 익숙한 주제를 보편적 가치로 읽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1996년 MBC 창사 특집으로 방송됐던 노희경 작가의 4부작으로 된 동명의 드라마를 영화로 재탄생 시킨 작품이다. 감칠맛 나는 언어를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을 파고드는데 탁월한 재주를 가진 노희경 작가의 극중 대사는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관객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속을 살아있는 감동으로 순식간에 채워버리곤 한다.

의사 부인으로 두 자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중년의 인희(배종옥)에게는 가족 그 누구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들이 아니다. 남편(김갑수)은 의료사고 때문에 운영하던 개인병원을 말아먹고는 나이 어린 원장 밑에서 실의에 잠겨 마지못해 월급쟁이 의사로 일하고 있고, 백화점 직원인 큰 딸(박하선)은 유부남과 연애중이며, 사고로 난청인 아들(류덕환)은 삼수생에다 여자친구가 임신문제를 들고 나와 골머리를 썩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하나 밖에 없는 피붙이인 남동생 근식(유준상) 또한 허구한 날 놀음판을 드나들며 인희의 돈을 갈취하는데 정신이 팔려있다.

이 영화는 모성애라는 전통적인 최루성 무기를 들이대어 눈물짓게 만든다는 세간의 비평을 피하려는 듯 엄마를 둘러싼 가족들의 골치 아픈 상황을 다양한 소장르를 보는듯한 역동적 연출로 그려내고 있다. 노름에 빠진 근식이 아내와 다투는 장면은 코미디를 방불



케하고, 아들 여자친구의 임신 해프닝은 청춘드라마이며, 유부남과 사랑에 고민하는 딸의 이야기는 멜로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그러나 뭉니뭉니해도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김지영)의 속 뒤집어놓는 모습이야말로 이 영화의 볼거리이자 주인공 엄마의 가치를 도드라지게 만드는 대목이다. 겪어 본 사람은 안다. 치매에 걸린 가족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인희는 말한다. ‘사는게 무섭지, 죽는 건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엄마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조차 자신을 걱정할 처지가 못되나 보다. 자신이 죽은 뒤 살아갈 가족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 모성적 영성의 발견

가족에 헌신했던 엄마의 죽음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한국 교회가 되찾아야 할 모성적 가치를 전해주고 있는 까닭이다.

모성애의 출발은 생명지향성과 희생적 돌봄에 있다. 영화에서 엄마는 자신이 낳은 자식을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보인다. 삼수생 아들의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화를 내기 보다는 아들을 대신하는 책임감이 앞선다. 도박에 빠진 남동생 근식을 위해 자신의 죽음으로 받게 될 생명보험증서를 올케에게 전해준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봉변을 당하면서도 수발을 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역시 모성애적 돌봄의 깊이와 넓이를 말해준다.

현대인들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행하는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 세상에는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고 파고들어 상대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내세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교회는 자신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대상에게만 관심과 돌봄이 이루어져서도 안된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문제 너머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 존재가 지니는 생명이 곁에 드러난 문제보다 더 소중한다는 사실을 놓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모성애를 지닌 엄마는 다르다. 인희를 둘러싼 가족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 누구도 희생적 돌봄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사람 역시 없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

둘째 허물을 가진 자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은 모성적 특징의 또 다른 부분이다.

인희는 큰 딸이 같은 직장의 유부남과 사귀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일로 자신의 다 큰 딸을 심하게 책망하거나 속된 말로 사람 잡는(?) 일은 하지 않는다. 스스로 알아서 돌아올 때 까지 기다릴 뿐이다. 우리는 그 딸이 결국 헛된 욕망으로부터 돌아서서 엄마처럼 결

혼하고 살겠다고 했을 때 기독교 안에 뿌리내려왔던 모성적 영성을 발견하게 된다.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끝까지 참으신(히12:3) 예수의 모습에는 섭섭해도 견뎌내고 모든 허물을 끌어안을 줄 아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23:34)’

셋째 엄마는 아버지와 달리 높지 않고 넓고 낮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 품에 쉽게 안길 수 있다. 21세기 교회가 되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모성의 영성이다. 문제 많은 가족을 품고 사랑 가운데 죽어가는 영화속 엄마 인희가 그랬듯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랬듯이 허물을 감싸주고 끝까지 아무도 원망하지 않은 채,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자녀를 돌보는 위대한 어머니의 모성애 같은 영성이 교회에 흘러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



**강진구** 고신대 컴퓨터영상선교학과 교수이며 영화평론가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